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건물 특성별로 에너지 감소 목표치 차등화	시드니
문화·관광	5	"초중고 등에 현대미술작품 전시 성공적" 평가	파리
	9	청소년 도서전 운영···도서 관련 강연·세미나도 개최	뮌헨
	10	픽토그램 활용 등 '여행자 안내 표식 지침' 개정	도쿄
사회·복지	12	'여성이 능력 펼치는 도시 만들기' 행동계획 수립	오사카
	14	"시 자체가 공공건강 인프라··· 하이킹 코스도 무료 이용"	로스앤젤레스
	15	시정부의 교체되는 컴퓨터 성능 개선해 빈민층에 제공	로스앤젤레스
도시교통	16	'쌍방향 대중교통 접근성 지도' 단계적 업데이트	샌프란시스코
	19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강화 등 '이동성 계획 2035' 발표	로스앤젤레스
도시계획·주택	21	토지용도 재조정해 '보행친화도시' 조성	로스앤젤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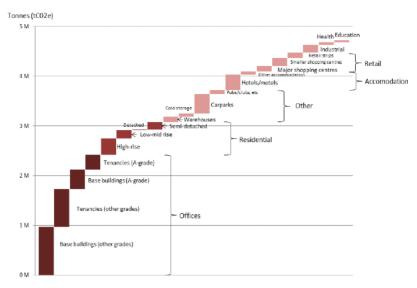


# 건물 특성별로 에너지 감소 목표치 차등화

에너지 효율 종합계획…에너지소비량 측정도구 표준화 호주 시드니市 / 환경·안전

- 호주는 세계에서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호주 시드니市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 이하 '2030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오고 있음. 2030 전략은 시의 탄소 배출을 2006년에 비해 70%까지 감소시키고, 에너지 비용 지출을 6억 호주 달러(약 5,200억위) 정도로 줄일 계획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시는 모든 건물의 에너지 이용 실태 분석에 기초한 '에너지 효율 종합 계획(Energy Efficiency Master Plan 2015-2030,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일반 가정 및 상업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종합계획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bottom -up)' 실행을 추구함.
- 시는 청사, 지역사회 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물의 설비를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연도(2006년)보다 29% 감소시켰고, 연간 1백만 호주달러(약 9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오고 있음. 하지만 시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와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는 5% 감소한 반면, 인구는 12%, 주택은 7%, 비즈니스는 13%, 고용은 17% 상승함.
  - 종합계획 발표는 이러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2030 전략 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
- 종합계획은 건물 특성별로 범주를 구분하고 건물 종류별로 에너지 소비 특성을 세분

화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에너지 소비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을 제시함.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과 설비를 파악하여 건물 특성별로 에너지 감소 목표치를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임.



건물 특성별 에너지 소비 실태(2006년 기준)

- 학교와 병원 등의 공공건물, 쇼핑센터 등의 상가건물,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시 전체 에너지의 75%를 소비하고 있음. 또한 난방, 환기, 에어컨 등의 설비에 서도 전체 에너지의 75%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자료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과 시설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예를 들어 냉동물 보관소(cold storage) 는 개수가 적지만 에너지 집약적(energy-intense)이여서, 효율적인 설비로 교체하면 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음. 학교는 단위 건물당 에너지 소비는 많으나, 그 수가 적으므로 후순위로 접근해도 됨.
- 실제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각종 장애요인이 존재함. 종합계획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파악하여 크게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였음.
  - 서로 다른 동기(split incentive) : 에너지 효율 향상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수

혜받는 자 사이에 이해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면, 전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나 설비를 선호하지만, 설비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임대인은 동기가 약할 수 있음.

-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 대규모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에서 건물주는 정부, 건물 설계자, 투자자, 설비 공급 및 설치자, 입주자, 건물 관리 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됨.
- 인지도 및 능력 부족: 혜택에 관한 이해만으로는 실제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음. 의사결정자들은 여전히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에 대한 데이터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음.
- 상충하는 우선순위: 상가 혹은 일반가구에서는 대부분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투자가 지출의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제한된 재정: 대규모 설비 개선에는 큰 비용이 수반되며,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자는 제한된 경제적 자원으로 초기 비용의 부담이 큰 실정임.
- 규제·법령의 이해 및 준수 미흡 : 상당수의 건물, 상가, 주택은 '국가 건설 규정 (National Construction Code)' 혹은 '건물 환경 지수(Building Sustainability Index)' 등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규정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종합계획은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세부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11가지 사항의 실행 방안은 2030년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종합계획 세부 실행 방안

실행방안	일정	세부내용
에너지 절감 법적 장치	2030년까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 지원 강화
유지 및 강화		·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건물들의 규제 준수 향상	2020년까지	· 공공·민간 건물의 신축 혹은 개조 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
		· 에너지 효율 규정에 미달되는 건물이 향상되도록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표 계속)

실행방안	일정	세부내용
에너지 효율 규정 상향 조정	2020년까지	· 국가건설규정과 건물환경지수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상향 조정 · 건물 유형별로 무탄소 건물 로드맵(zero carbon buildings roadmap) 개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2020년까지	<ul> <li>시에서 소유하거나 임대 중인 건물에 대해 주 정부(NSW Government Resource Efficiency Policy)와</li> <li>연방정부(National Australian Built Environment Rating System)의 에너지 효율 정책 도입</li> <li>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술·설비를 조기에 시범 도입</li> </ul>
교육 및 훈련	2020년까지	· 주민, 상가 등 주요 에너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실행 계획 수립 · 에너지 효율 향상의 실질적인 경제 혜택 사례 발굴
작은 실천 프로그램 개발	2020년까지	<ul> <li>건물 사용자가 큰 불편 감수 없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정 활동(tune-up) 권장</li> <li>전기 부하량(power factor) 수정, 건물관리체계 최적화, 누전 방지, 전등 환기 등 일반 설비의 정기적 점검, 시설별에너지 수행 기준 개발</li> </ul>
건물 에너지 개보수 프로그램	2020년까지	· 건물의 에너지 설비를 수리 혹은 교체할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
재정적 / 비재정적 유인 강화	2020년까지	· 주 정부의 재정 원조 협약 체결 · 기후·에너지 채권(energy bond) 발행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 확립
에너지 등급 표준화 및 에너지 소비 보고 의무화	2030년까지	· 건물 유형별로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량 측정 도구의 표준화 · 에너지 소비량이 자동으로 측정되어 보고되는 시스템 개발
건물 유형별 에너지 사용 관리	2020년까지	· 건물 유형과 특성별로 에너지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용 후 실적을 모니터링
형평성	2030년까지	<ul> <li>개선을 위한 재정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에너지 효율 향상의 혜택이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li> <li>저임금 혹은 재정 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li> </ul>

- 종합계획은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sydneyyoursay.com.au)에 게시되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http://www.sydneymedia.com.au/energy-efficiency-to-slash-greenhouse-emissions-and-bills/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153282/Renewable-Energy-Master-Plan.pdf

# 문화·관광

# "초중고 등에 현대미술작품 전시 성공적" 평가

프랑스 파리市 / 문화·관광

- 파리市는 어린이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을 위한 예술(L'Art pour grandir)' 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고, 관련된 예술 장르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성장을 위한 예술'은 문화시설·단체 66곳, 유치원과 초등학교 260곳, 중학교 70곳과 어린이 문화센터 200곳 등에서 추진되었으며, 2010년 '공공서비스 혁신상(le Prix Territoria)'에서 동상(銅賞)을 받음.





파리 14구 한 유치원에 설치된 현대미술 작품. 작가인 사우이 콘라드 로데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음. (사진 출처: Loan N'Guyen, 파리시청 FMAC 담당자)

2009~2010학년도: 1단계의 성공과 압도적인 호평

- '파리시립 현대미술 수장고(FMAC, Fonds Municipal d'art Contemporain de la Ville de Paris)'가 기획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파리의 현대미술 소장품을 전시하

는 'Le FMAC à l'école'(2009~2010) 행사는 프랑스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평가를 받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둠.

- 예술가 29명의 작품 38개가 주변적 중산층과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파리 11구, 13구, 19구, 20구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9곳에서 전시되었음. 이 중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학업실패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임.
- '성장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예술교육과 문화접근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8천 명의 학생들이 한 학년도 내내 현대예술 진품을 접했으며, 이런 경험은 학생들에 게 예술작품을 개인적이고 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음.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은 작품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각성시킴.
  - 파리 시립 미술학교의 조형예술 교수와 초·중등학교 교사들, 파리 8대학 미술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적 성과를 높이고 프로그램 홍 보도 담당함.
  - 학교 교육에도 문화와 예술 창작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서로 다른 교육단계에 있는 학생들(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두)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성장을 위한 예술'은 작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킴. 실 제로 학생들은 놀이와 예술 창작법, 미술이론 등을 결합한 예술교실에 참여함.
  - 예술교실에서는 각종 예술 분야와 기술이 다뤄짐. 또한 건축물 모형, 그림 그리기, 찰흙 소조, 도자기 빚기, 설치미술, 데생, 서예, 동판화, 사진, 동영상, 퍼포먼스, 뉴-테크놀로지 예술 등의 아틀리에가 조직됨.
  -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외부 세계에서 예술가로 일하는 방법을 실습할 수 있었음. 전시 이론과 실제 전시회 준비를 연결하고, 예술 창작지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참여한 예술 작가와 교수들도 학생들을 만나 직접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등 예술교실을 진행하면서, 혼자만의 창작이 아니라 공교육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됨.

- 아이들에게 전시된 작품들의 주제는 대부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과 공통의 가치를 다룸. 예를 들어 도시(실제 도시, 새로운 도시, 이상적 도시), 공해, 역사, 시민성, 권리 주장, 차이, 타자의 이해, 여행, 과학 문화, 꿈 등이 대표적임.
  - 학기말에 여러 활동들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예술가들의 작품 원본과 함께 그간 예술교실에서 창작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함. 이 전시회를 통해 부모들도 현대미술을 만날 기회가 생김. 학생들의 작품을 모두 포함한 전시책자가 제작되어 모든 학생에게 배포됨.

#### 2011~2012학년도 : 사업 확대

- 전년도의 성공으로 사업 연장과 확대 요청이 이어져, '학교에 현대미술 소장품 전시' 프로그램이 2011~2012학년도에 다시 시행됨.
  - 예술가 32명의 작품 52개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문화센터 등 30개 기관에 전시됨. 유치원 6곳,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7곳의 학생 8,600명이 사업 대상이며 사업 지역도 파리 3구, 11구, 14구, 15구, 18구, 19구, 20구 등 8개 자치구로 확대됨. 특히 현대미술계의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

#### 2012~2013학년도 : 사업 재시행

- 2012~2013학년도에는 작가 21명의 작품 39개가 파리 10구, 11구, 13구, 14구, 15구, 18구, 19구, 20구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1개 기관에 전시됨. 이 해 또한 미술계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함.

### 2013~2014학년도: 사업 안정기, 꾸준한 시행

- 3년간에 걸친 사업 성공으로, 2013~2014학년도에서 '성장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꾸준히 진행되어 작가 18명의 작품 39개가 학교 19곳에 전시됨. 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뿐 아니라 특성화 고교와 '병원 내 입원 환자를 위한 교실' 등에도 전시됨. 전시된 지역은 파리 11구, 12구, 13구, 14구, 15구, 18구, 19구, 20구임.
- '성장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예술교육의 구태의연한 관습을 벗어나는 계기가 됨. 교사와 학생들이 예술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기 때문임.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병원 내 입원 아동을 위한 교실을 대상으로 함. 작품 원본을 즐기고, 작품의 섬세함을 이해하며, 현대미술 감상법과 예술창작을 발 견하도록 함. 또한 학생들이 예술 창작에 눈 뜨고 소질을 계발할 수 있게 하며, 한 예술작품과 연관된 감수성과 관련 활동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생·대학원생은 전시 이론과 전시 개최 현장을 연결하는 법을 실습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움. 또한 장래 직업을 얻을 전망에서 예술 홍보 분야의 경쟁력을 키움.
  - 파리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현대미술 입문을 촉진하고, 교육기관들이 현대미술 작품을 맞이하도록 함. 또한 파리시의 현대미술 소장품을 배급하고 문화/예술 분야 학생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

http://blogs.paris.fr/fmacalecole/page-d-exemple

http://fr.wikipedia.org/wiki/Zone d%27%C3%A9ducation prioritaire

 $http://fr.wikipedia.org/wiki/R\%C3\%A9seau\_ambition\_r\%C3\%A9ussite$ 

# 청소년 도서전 운영…도서 관련 강연·세미나도 개최

독일 뮌헨市 / 문화·관광

- 뮌헨市 문화국은 독일 출판협회와 바이에른州 출판협회의 협조를 얻어 3월 7일부터 9일간 시립 박물관에서 '뮌헨 청소년 도서전'을 운영함. 이 도서전은 약 5,000권의 청소년 도서와 학습용 게임, 교육 지침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관람하고 체험할수 있는 특별 전시회로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함.
- 방문자는 도서전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도서 및 문화와 관련된 다음 프로 그램들을 접할 수 있음.
  - 다수의 유명 작가가 이 행사에서 자신들의 신작을 낭독함.
  - 파리(Paris)를 주제로 한 음악 여행, 글쓰기 교실, 공작 및 바느질 교실, '영화속의 책' 등의 교양 강연이 개설됨.
  - 방문자들은 '다양한 언어 속의 뮌헨'이라는 주제에서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책과 강연을 접할 수 있음.
  - 바이에른 주립 박물관과 방송국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도서뿐만 아니라 트릭 영화 제작 과정도 참관할 수 있음.
  - 문화 전문 잡지인 '당나귀 귀(Eselsohr)'誌 발행인 크리스티네 팍스만(Christine Paxmann)과 편집장 일비아 무케(Sylvia Mucke)는 별도의 강연을 통해 2015년 초에 나온 신간 중 양질의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소개함.
  - 교육적 관점에서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유치원 과 초등학교에서의 언어 다양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도 개최함. 또한 학년별로 학생들을 위한 강좌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infos/Aktuelles/Auswahl/9.-M-nchner-B-cherschau-junior-im-M-nchner-Stadtmuseum.html

# 픽토그램 활용 등 '여행자 안내 표식 지침' 개정

일본 도쿄都 / 문화·관광

- 도쿄都는 외국인 여행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이 편안하게 보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알 기 쉬운 안내 표식의 보급'을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2008년 2월 '국내외 여행자를 위한 쉬운 안내 표식 표준화 지침'을 책정하였고, 관광청의 '관광 활성화 실현을 위한 다언어 대응의 개선·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2015년 2월에 '도쿄도 판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 가이드라인은 도쿄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가 편안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안내 표시와 매체를 보완하고자 함.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영어와 일본어의 두 개 언어를 기준으로 하고, 픽토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 지역·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한국어와 중국어 등을 포함하여 다언 어로 표시할 수 있음. 중국어는 간체자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번 체자를 활용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시설 확대: 관광청의 지침을 개정하여 보행자 부문, 철도 부문에 '관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부문을 추가함.
  - 다언어 대응 강화 : 외국어 표기 방법을 정리하고, 도쿄 내의 시설명, 지명 등 1.800개 단어를 포함한 '도쿄도판 대역표(일·영·중·한)'를 제시함.

日本語	英語	中国語(簡体字)	中国語(繁体字)	韓国語
東京都庁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东京都厅	東京都廳	도쿄도청
レインボー ブリッジ	Rainbow Bridge	彩虹桥	彩虹大橋	레인보우 브릿지

외국어 표기 대역표(일·영·중·한)

- 픽토그램·마크 제시 : 외국인 수요가 높은 시설(편의점, 해외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한 ATM 등)의 픽토그램을 제시함.
- 외국어 메뉴를 갖추고 있는 매장에 '외국어 가능 마크'를 표시하도록 안내함.



-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행자 부문 : 관광안내 표식은 일본어·영어, 범례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 어로 표시함. 유도 표식은 영어·일본어로 함.
  - 철도 부문 : 외국인 여행자 이용이 많은 역의 주요시설과 설비 안내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 등 4개 국어를 사용함. 노선 마크와 역의 숫자 등을 부여하고, 표시판을 연속적으로 설치함. 비상시를 위해 차내 영어 방송과 표시 방법을 게재함.
  - 관광시설·숙박시설·음식점 부문 : 미술관·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입장 및 시설 안내를 외국어로 진행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전시 내용을 해설하도 록 노력해야 함. 숙박시설은 설비·주변 정보, 이동 방법 등의 안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함. 음식점은 현관에 다국어로 된 메뉴와 사진을 부착하여, 각 요리에 관한 설명과 사용 재료를 표시해야 함.

http://www.gotokyo.org/jp/administration/h26/201502191.html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5/02/20p2j500.htm http://www.gotokyo.org/jp/administration/h26/documents/02.pdf

# 사회·복지

# '여성이 능력 펼치는 도시 만들기' 행동계획 수립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 오사카市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도시 오사카'를 만들고자 지난 2014년 11월 '오 사카시 여성 활약 촉진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을', '활약하고 싶은 여성이 희망을 갖는 마을', '여성이 생생하게 빛나는 마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이 활동 계획은 여성의 학생 시절부터 은퇴 시절까지의 삶의 주기를 바탕으로 종합적 인 여성의 활약을 촉진시키고자 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목표	주요 사업
경력 형성 지원 : 어린이에게 꿈을, 학생에게는 롤 모델과의 교류를!	<ul> <li>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주체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체험형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li> <li>앞으로 취업하는 젊은이나 근속 연수가 짧은 청년 노동자가 지역·기업·NPO· 대학 등에서 활약 중인 여성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실시</li> </ul>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기업을 응원!	·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기업 인증 제도의 확립 : 오사카시 여성 활약 선도 기업 · 여성에게 근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는 여성을 지원	· 보육자가 자택을 방문하고 돌보는 '방문형 보육 모델 사업'을 실시 · 모든 시립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및 휴일에 '아동 생생 방과 후 사업'을 실시
가사·육아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을 지원	<ul> <li>본인 스스로 '가정적인 남자'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 시트 제공</li> <li>기업과 연계하여 남성의 의식 계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가사·육아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매력을 널리 강조</li> <li>오사카시 여성 활약 리딩 컴퍼니와 인증된 기업 가운데 특히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기 쉬운 직장 등의 기업정보를 홈페이지와 SNS와 연동하는 등 널리 홍보</li> </ul>
재취업·창업·NPO 등을 경영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후배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	· 결혼·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중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상담·직업 소개·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 창업자 지원센터·NPO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각종 업계에서 활약 중인 여성 리더들의 교류회 등을 개최 · 각종 세미나· 강좌· 커리어 컨설턴트 등의 행사를 실시
지도적 지위를 목표로 하는 여성을 지원, 경영층의 의식 개혁과 선후배의 네트워크 연결	<ul> <li>기업의 임원(또는 이를 목표로 하는 여성) 대상으로 교류회 등을 시행</li> <li>기업의 여성 임원이 참석하는 토론회, 롤 모델이나 경영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li> <li>여성 친화적인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시행</li> </ul>

#### (표 계속)

목표	주요 사업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 각 지역 대표 활동 여성을 각 자치구 추천 등으로 분야별(교육, 의료, 경제 산업,
여성을 홍보!	문화 연예 스포츠, 연구자 등) 선출
	· 육아 모임, 커뮤니티 카페, 고령자 보호 활동이나 지역 활동에 관한 협의회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을 홈페이지와 SNS와 연동하여 널리 홍보
지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 방재 분야에서 여성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
지원,	· 지역 방재 리더에 관한 전문직 여성 등록 제도의 정비 검토
지역 방재 등에 여성의	·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며, 방재 담당 각 부서에 여성 위원의
힘을 발휘하도록!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공청회를 시행

- 이 계획을 토대로 오사카시는 2015년 2월 27일,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활약 선도 기업' 인증 대상을 발표함. 여성 활약 선도 기업으로 인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오사카시의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해 인증 기업의 명칭과 대처 내용 등을 홍보함. 인증기업 정보를 대학이나 시내의 고등학교 등에 홍보함. 구직자 등에 관한 인증 기업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회를 설정함.
  - 또한 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함.
  - 인증기업은 '오사카시 여성 활약 선도 기업 인증 마크'를 상품이나 광고, 명함 등에 사용할 수 있음.

http://www.city.osaka.lg.jp/shimin/page/0000289762.html

http://www.city.osaka.lg.jp/shimin/page/0000290725.html

http://www.city.osaka.lg.jp/shimin/cmsfiles/contents/0000290/290725/saihuuhonnpen.pdf

### "시 자체가 공공건강 인프라… 하이킹 코스도 무료 이용"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사회·복지

- 로스앤젤레스市는 사설 체육관의 대안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도시 내에 있는 공공건강 인프라(Public Fitness Infrastructure)에 관한 리뷰를 시작함.
- 공공건강 인프라는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시설로, 시설이 설치된 공원이나 산책로 등이 포함되어 있음. 시는 이러한 시설을 시민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 비영리단체인 공공토지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과 함께 협력 하여 공원 내에 건강구역(Fitness Zone)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건강구역에는 사용하기 쉬운 야외 체육관 장비가 설치되어 무료사용이 가능함.
  - 또한 건강구역은 어린이 놀이터와 근접한 곳에 있어 어른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됨. 또한 텔레비전이 없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산책로 위치·길이·높이·경사·안전사항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각 산책로에 대해 평가나 방문 후기를 남 길 수 있도록 계정을 운영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이용을 높이고자 함.
  - 그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도시 자체를 공공 건강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로스라이언스 캐년(Los Liones Canyon), 런년 캐년(Runyon Canyon) 등 하이킹 코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http://losangeles.urbdezine.com/2015/02/22/where-do-you-exercise-public-and-affordable-fitness-resources-in-la/

### 시정부의 교체되는 컴퓨터 성능 개선해 빈민층에 제공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사회·복지

○ 로스앤젤레스市는 시 정부가 교체하는 컴퓨터 중 성능 개선이 가능한 것을 재활용하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OurCycle LA' 를 시행함. 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교육자 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OurCycle LA 로고

- 'OurCycle LA'는 지방정부, 자선단체, 비영리 단체,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컴퓨터 성능개선을 위한 교육과정과 일자리 창출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음.
  - 개선된 컴퓨터는 우선 저소득 가정이나 자선단체에 제공될 예정임.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10달러(약 1만 1천 원)의 인터넷 사용료와 컴퓨터 수리비 65달러(약 7만 3천 원)를 내면 됨.
  - 성능개선이 어려운 약 6천 대의 컴퓨터는 LA Cleantech Incubator와 같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 기술 습득자에게 기술을 배우는 용도로 사용될 것임.
-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저소득층 이주민이 많기 때문에, 연소득이 2만 달러(약 2천 3백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47%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govtech.com/local/OurCycle-LA-Turns-E-Waste-Into-Societal-Gain.html?elqaid=25912&elqat =1&elqTrackId=7d18528e04e945a99f50fffe0a12da91

http://ita.lacity.org/ForResidents/OurcycleLA/index.htm

# 도시교통

# '쌍방향 대중교통 접근성 지도' 단계적 업데이트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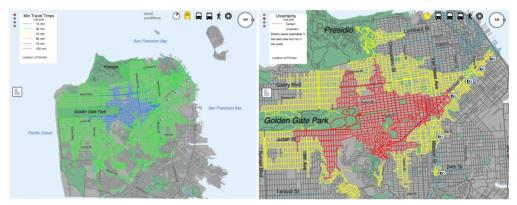
- o 최근 샌프란시스코市는 예상 통행시간에 맞춰 버스나 지하철을 선택할 수 있는 '쌍방 향 대중교통 접근성 지도(Interactive Access Map, 이하 접근성 지도)'를 제공하기 로 함.
- 쌍방향 대중교통 접근성 지도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60,000개의 실제 통행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 이 지도는 기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통행 정보서비스보다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훨씬 활용도가 높아 일반 승객도 이용할수 있음.
- 아래 그림은 하이트-애쉬베리街에서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하는 대중교통 승객의 접근성 지도 이용 예시임. 지도에 승객의 구체적인 예상 이동시간과 통행 허용시간(차내 시간, 차외 시간, 환승 시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100분)을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볼 수 있음. 지도에서는 15분 이내와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가 표시됨.



평일의 접근성 지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쁜 요일의 접근성 지도

- 접근성 지도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용이한 요일과 서비스가 좋지 못한 요일을 구분할 수 있음. 위 그림을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쁜 요일(대중교통 서비스 하위 15%)에 30분 이내 대중교통 서비스 가능 지역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대로 아래 그림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월등히 좋은 요일(대중교통 서비스 상위 15%)의 서비스 가능 구역을 보여주고 있음. 위의 예시와는 달리 15분과 3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가능 구역이 현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음.



대중교통 서비스가 월등히 좋은 요일의 접근성 지도

접근성 지도의 정확도 예측 모습

- 대중교통 서비스 업체가 평균보다 좋은 서비스를 매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시당국도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샌프란시스코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30분 내로 통행할 수 있음.
- 대중교통 승객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쌍방향 대중교통 접근성 지도는 다른 여타 교통 정보 제공 서비스보다 월등한 정확성을 보여줌.
  - 즉, 위 그림(오른쪽)은 30분 이내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과 노란 선은 30분 이내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나타내고 있음.

- 이 지도로 대중교통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곳으로 파악하여 본인의 통행시간을 예상할 수 있음.
- 실제로 그동안 많은 대중교통 계획가와 연구자들이 대중교통 접근성 지도를 만들어 왔음. 하지만 이번 샌프란시스코시의 접근성 지도는 기존의 서비스와 달리 실제 통행 자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음.
- 샌프란시스코는 향후 쌍방향 대중교통 접근성 지도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 며, 2015년에는 1년 단위로 변화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임.
  - 이러한 서비스로 대중교통 이용자는 좀 더 쉽게 본인에게 맞는 대중교통을 찾을 수 있으며,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또한 대중교통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향후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됨.

http://www.citylab.com/commute/2015/02/every-city-should-have-something-like-san-franciscos-mass-transit-access-map/385336/

https://www.ocf.berkeley.edu/~djhoward/transitmap/transi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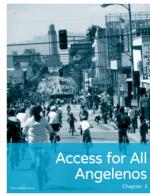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4/04/29/cutting-edge-transportation-maps-will-change-how-we-understand-and-plan-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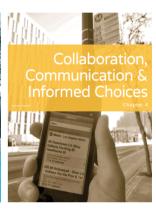
#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강화 등 '이동성 계획 2035' 발표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도시교통

○ 로스앤젤레스市 도시계획부는 이동성(mobility)의 청사진을 담은 '이동성 계획 2035 (Mobility Plan 2035, 이하 이동성 계획)'을 2015년 2월에 발표함. 이동성 계획의 주요 목표는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접근 가능한 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에는 도보·자전거·버스·기차 등 모든 이동 가능한 수단 이 포함되어 있음.







이동성 계획 2035(Mobility Plan 2035) 문서

- 자전거는 이번 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완벽한 도로(complete streets)'라는 콘셉트로 주 요 도로를 두 가지 수준의 대로(boulevard)와 세 가지 수준의 가로(avenue)로 재분 류함.
  - 대중교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운행 빈도를 5분, 전체 대중교통 운행 빈도를 15분으로 목표를 설정함.
  - 산업단지에 충분한 거리 인프라를 제공하고, 단지 내 트럭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관한 설계기준을 변경함.
  -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철도협회인 메트로 링크(Metrolink)와 화물철도 운영자

와 협력하여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제거할 계획임.

- 혼잡 및 비상 가격책정(Congestion and Cordon Pricing)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잠재적 수익에 대한 가격책정 구역의 경계와 접근점을 설정함.
- 무공해 차량 공급을 늘리고, 대체 운송수단인 교통 패스와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계획과 기금을 개발하여 실행하고자 함.
  - 거리 주차의 효율적인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요기반의 미터 가격책정(Meter Pricing)을 설정하여, 수요가 많은 거리에 더 많은 주차비용을 부과하고자 함.
  - 버스에 자전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앞쪽에 3대 정도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랙 시스템(bike rack system)이나 버스 뒤에 자전거를 들고 탑승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제시함.
  - 보도의 쓰레기통 개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 기업과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쓰레 기통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함.

http://la.curbed.com/archives/2015/02/heres\_the\_big\_plan\_to\_make\_it\_way\_easier\_to\_get\_around\_los\_a ngeles\_over\_the\_next\_20\_years.php

https://losangeles2b.files.wordpress.com/2015/02/appendix-b1-mobility-2035.pdf

# 도시계획·주택

# 토지용도 재조정해 '보행친화도시' 조성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도시계획·주택

- 로스앤젤레스市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사회 결속력이 강한 도시를 위해 1946 년 이후 처음으로 조닝(Zoning, 도시공간의 기능별 분류·배치)을 업데이트하는 '리조 닝 로스앤젤레스(ReZoning Los Angeles)'를 진행하고 있음.
- 조닝은 지방정부가 토지사용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제시스템으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여러 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임. 조닝 코드는 새로운 건물을 건설할 때나 기존 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변환할 때 등의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닝 코드를 개정하여 보행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복합용도 지역 조닝 확대: 현재 주거 및 상업 활동을 포괄하는 복합용도 지역은 시 면적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조닝 범주를 더 세분화하거나 다른 조닝을 통합해 여러 개의 복합용도 지역을 만들 수 있음. 주거지역에 근접한 다양한 편의시설은 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주차공간 의무화 조건 완화 및 제거 :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조건은 되레 운전을 장려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비를 상승시키며 기후변화에까지 영향 을 미침.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완화되거나 철폐되어야 함.
  - 보행자 중심의 건물과 거리 조성: 조닝으로 건물 위치를 규제하여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주요 거리에 가게와 상점을 유도하고 골목으로 주차공간을 이동시켜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음.

http://www.publicceo.com/2015/02/rezoning-los-angeles-can-we-legalize-a-walkable-city